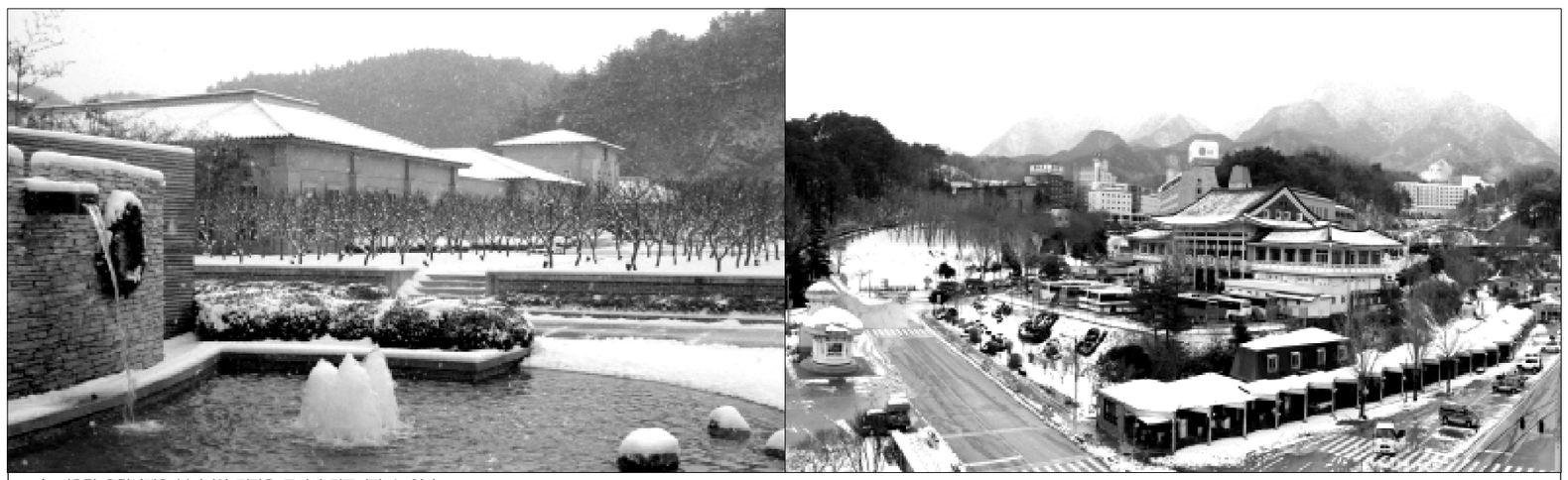

◆ 겨울철 온천여행은 볼거리와 건강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겨울에 따뜻한 물 속으로"

겨울 온천여행 여기로…

◆ 노천탕에 몸 담그니 월악산 줄기가 눈 앞에

수안보온천은 오랜 연륜을 자랑하는 보양온천이다.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청구도 등의 역사책에도 그 이름이 등장한다. 이곳 온천수는 각종 무기물과 광물질이 골고루 녹아있는 약알칼리성이며 수온은 섭씨 53도이고 음용도 가능하다.

충주시에서 온천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수질을 믿을 수 있고 모든 온천들은 똑같은 물을 공급받아 원탕이라는 곳이 따로 없다.

온천수를 이용하는 업소는 수안보하이스파, 수안보상록호텔, 수안보파크호텔 등 20여 개를 헤아려 한꺼번에 많은 이용객이 모여도 그리 불편하지가 않다.

수안보온천은 남한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가까이 지나가 전국 어디에서든 접근하기가 편하다. 겨울철에는 인근의 사조리조트 스키장과 연계해서 온천여행을 즐길 수 있다.

문의전화 : 충주시청 문화관광과 043-850-6723,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 043-846-3605

◆ 눈 오는 날 노천탕에서 이야기꽃 피우는 웰빙여행!

눈이 오는 날 노천탕에 앉아 몸을 담그고 있으면 그야말로 신선이 따로 없다.

몸은 후끈후끈 뜨겁지만 얼굴에 부딪히는 눈송이 덕분에 기분이 절로 좋아진다.

모처럼 부모님과 야외 노천탕에 앉아 피로를 풀며 오순도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가족들과 온천욕으로 시간을 보낸 후 따뜻한 차를 한잔 곁들이면 몸을 위한 완벽한 코스가 이루어진다.

담양은 대나무와 하얀 눈이 마음을 사로잡는 겨울풍경이 여행자를 반긴다. 여기에 겨울 여행의 백미인 온천까지 곁들인다면 완벽한 휴식여행을 즐길 수 있다.

겨울여행의 묘미를 경험할 수 있는 **담양리조트**는 **금성산성**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1,260개의 락카를 갖춘 대온천탕과 노천탕을 갖추고 있으며, 찜질방과 피부 미용실, 마사지실을 갖추고 있다.

담양리조트는 콘도, 한식당, 특산품 판매장, 수영장 등의 부대시설이 있지만 한겨울엔 역시 온천이 인기가 있다. 온천욕을 즐겼다면 인근에 있는 대나무건강나라에 들러 대잎차를 마셔보자. 대잎차를 시음도 하고, 구입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또한 **창평**의 삼지천슬로시티도 꼭 들러볼만한 곳이다. 창평면소재지가 있는 삼천리는 한옥과 돌담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 이 겨울 뿌리칠 수 없는 온천의 유혹, 경북 울진

울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이미지는 죽변항과 후포항 그리고 7번 국도를 따라 펼쳐진 동해 등 바닷가 마을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즈음 울진으로 떠나는 여행에선 멋스런 바다풍경도 2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몸과 마음은 물론 정신적 피로까지 말끔히 풀어줄 뜨끈한 온천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울진에서 온천의 역사는 짧게는 600년, 길게는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 말 사냥꾼 전씨와 상처 입은 멧돼지의 전설을 간직한 **덕구온천**이 전자라면, 신라시대 상처 입은 사슴의 전설이 구전되어 오는 **백암온천**이 후자이다. 이 겨울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동해 최고의 온천휴양도시 울진으로 떠나는 여행이 가슴 설렐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의전화 : 울진군청 문화관광과 : 054)789-6541

◆ 희귀 미네랄이 녹아 있는 해저심층온천수, 금진온천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이 그리운 겨울이 되면 뜨끈뜨끈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거기다 창밖 풍경으로 바다까지 바라볼 수 있다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 **정동진** 아래 **금진온천**은 해안 단구지역 1,100m 고생대 암반층에 갇혀 오랜 세월 숙성된 해수로 온천수를 사용한다.

칼슘, 마그네슘 등 필수 미네랄뿐만 아니라 항암에 도움이 되는 셀레늄(Se), 혈당 강화작용이 있는 바나듐(V) 등 희귀 미네랄이 물에 녹아 있어 온천욕으로 그만이다.

아토피, 천식, 위장질환 등 각종 병 치료에 **금진온천**이 탁월한 효과가 있다. 미세한 황토 입자가 녹아 있는 와인빛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창밖을 내다보면 금진항을 끼고 있는 푸른 바다가 한 폭의 수채화로 들어온다. 금진항에서 심곡항까지 높이 60m의 해안단구와 바다와 절묘하게 맞닿아 있는 바닷길 헌화로는 강릉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다.

문의: 금진온천: (033) 534-7397

강내영 기자 kny@eduyonhap.com

한강에 내려앉은 두 마리 종이학

양화대교 전망쉼터 '아리따움 양화·선유' 운영

한강다리 위에서 즐기는 서울의 그림 같은 풍경에 맛 들린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양화대교 남단 상류와 하류에 전망쉼터 '카페 아리따움 양화'와 '카페 아리따움 선유' 두 곳이 새롭게 선보였기 때문이다.

이번 양화대교 전망쉼터 두 곳이 오픈하면서 서울에는 한남대교 '카페 레인보우'(7월 1일 오픈), 잠실대교 '리버뷰 봄'(7월 31일 오픈), 광진교 '리버뷰 8번가'(8월 5일 오픈), 동작대교 '노을·구름카페', 한강대교 '리오·노들카페'(11월 5일 오픈) 등 총 9개의 전망쉼터가 운영된다.

다리의 수평성과 어울리게 조형된 것이 특징인 '카페 아리따움 양화'와 '카페 아리따움 선유'는 모두 버스를 이용하거나 인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하여 한강공원에서도 비교적 쉽게 찾아갈 수 있다.

카페 규모는 각각 77.25㎡로, 카페당 50여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동양적인 분위기로 디자인된 카페 아리따움 양화는 한강과 당산철교·여의도 등의 조망이 가능하며, 허브차를 비롯하여 주스·커피류 등의 메뉴를 즐길 수 있다.

카페 아리따움 선유는 서양적인 분위기로 선유도공원과 성산대교, 월드컵 분수 등을 조망할 수 있다.

또한 테이블과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의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음료외에 와인, 막걸리, 칵테일 등 주류 주문도 가능하다.

독특한 디자인의 경사형 엘리베이터도 색다른 경험

이와 함께, 독특한 디자인의 엘리베이터를 타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듯하다.

엘리베이터는 단순히 수직으로 이동한다는 통념을 뛰어 넘어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디자인돼 전망하는 재미를 더했다.

특히 이 구조물의 머리 부분은 종이학의 형태로, 마치 한강에 두 마리의 종이학이 내려앉은 듯한 모습을 연출한다. 또 길이를 연장시켜 가로등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버스정류장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ㄷ'자 형태로 디자인했으며, 원형창을 통해 한강의 풍경을 즐기는 것이 가능하다.

양화대교 전망쉼터는 선유도공원이나 양화한강공원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시 지하철 2호선 당산역에서 하차하여 연계버스를 타거나, 9호선 선유도역을 이용하면 된다.

비수기(10월~3월)는 오전 11시~밤 11시까지, 성수기(4월~9월)는 오전 10시~밤 24시까지 연중무휴 운영한다.

카페관련 문의 아리따움 양화(☎ 02-2631-7345), 아리따움 선유(☎ 02-3667-7345)

울산시, 강동유원지 '강동 관광단지'로 지정

국제적 수준 해양복합관광휴양도시 건설

울산에도 최초의 '관광단지'가 지정됐다.

울산시는 국제적 수준의 해양복합관광휴양도시로 건설 중인 강동권 개발사업 중 관광거점지구인 '강동유원지'를 '강동관광단지'로 지정,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울산시는 울산에서는 최초로, 전국에서는 22번째의 '관광단지'를 보유하게 되었다.

강동 관광단지는 북구 무룡동·산하동·정자동 일원에 135만 8,244㎡의 규모로 지정되며, 기존 강동유원지를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기존 강동유원지의 조성계획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번 '강동 관광단지' 지정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관광지역으로서의 인지도를 크게 개선시키는 한편, 취득세·등록세·농지 및 산지전용부담금·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 감면이 부여되고, 기존 유원지에 비해 시설이 다양화된다.

또 기반시설조성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해 지는 등 개발에 따른 각종 투자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자유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 관광단지'는 2000년 3월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최초 결정되었고, 2006년 9월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2007년 11월 '워터파크지구'가 선도 착공하였으나,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타 지구에 대한 신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 관광단지 지정으로 인한 조기 투자 및 신규 투자 유인 효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